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비유는 흔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도 비유를 성경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9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경건해 보이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가장 멸시받던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왜일까요?

• 예수님 당시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우선,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신앙의 모범자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 세금을 걷는 매국노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의 눈에 의로운 자였던 바리새인보다,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멸시받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바리새인의 믿음의 문제: 스스로 의롭다 여김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과 동일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외양을 갖추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즉 행동과 모습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의에 대한 개념은 지극히 표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불의를 감추고, 자신의 은밀한 죄를 종교적인 행위로 적당히 가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겉모습과 행동이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 질 수 없다 -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

성경은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롬 3:10, 롬 17:9, 사 64:6) 우리의 행위나 종교적 겉모습은 결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뿜어 나오는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워야,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레 19:2, 마 5:48) 또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한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약 2:10, 갈 3:10)

우리의 노력, 헌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그 분 앞에서 조금의 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 -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복음적 대답은 바로 은혜이다. 하나님은 값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롬4:5) 하나님은 ‘일한 것이 없이’ 죄인을 의롭게 여기신다.(6절) 자신의 의지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실패하고 결국 스스로를 정죄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의 값이 치루어지고 온전한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치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도록 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비유에서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사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주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종교인이 아닌,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

목장 모임 순서 가이드

1. 찬 양 : 오늘의 결단 찬양을 다시 한 번 불러 봅시다.

오늘의 결단 찬양 : “은혜 아니면” → 찬양 QR Code



2. 대표기도 : 순번을 정해서 한 분씩 기도해 주세요.

3. 나 눔

질문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질문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질문 3)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세요.

4. 기도 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6/23(월)	6/24(화)	6/25(수)	6/26(목)	6/27(금)	6/28(토)	6/29(주일)
욥 32-36	욥 37-41	욥 42, 시 1-7	시 8-16	시 17-21	시 22-27	시 28-34

Q T

이번 주 QT 말씀

6/23(월)	6/24(화)	6/25(수)	6/26(목)	6/27(금)	6/28(토)	6/29(주일)
시 78:40-55	시 78:56-72	시 79:1-13	시 80:1-19	시 81:1-16	시 82:1-8	시 83:1-18